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12월 30일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유승광 과장 / 신영수 서기관
			044-201-6860 / 6874
배포일시	2020. 12. 29. / 총 8매		



12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 ◇ ‘12월 1~28일 농도 상황’ 등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26호 발간
 - ◇ (국내) 12.1~28일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5\mu\text{g}/\text{m}^3$, 최근 3년 12월 평균 대비 7% 지난해 12월 대비 4% 감소
 - ◇ (중국) 중국 공업신식화부,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지역에서 철강·시멘트 원료 등 증산 금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과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도입’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6호를 12월 30일 발간했다.
 - 환경부는 올해 1월 2일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우리동네 대기정보 (Airkorea) 앱 등에 공개해 왔다.
 - 제26호 소식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12월 현재까지(‘20.12.1~28.) 일일 단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mu\text{g}/\text{m}^3$ (12.14일)에서 최고 $52\mu\text{g}/\text{m}^3$ (12.11일), 평균 $25\mu\text{g}/\text{m}^3$ 로 지난해 동기간과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 12월 29~31일 농도 상황에 따라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4\sim 25\mu\text{g}/\text{m}^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지난해 12월($26\mu\text{g}/\text{m}^3$) 대비 최소 4%($\Delta 1\mu\text{g}/\text{m}^3$) ~ 최대 8%($\Delta 2\mu\text{g}/\text{m}^3$), 최근 3년 12월 농도 평균($27\mu\text{g}/\text{m}^3$) 대비 최소 7%($\Delta 2\mu\text{g}/\text{m}^3$) ~ 최대 11%($\Delta 3\mu\text{g}/\text{m}^3$) 개선된 수준이다.
 - 아울러, 2020년 12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12월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 다만,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환경부 종합상황실(실장 : 환경부 차관)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예보센터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에 지속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LiDAR)’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는 국내 연구진(부경대)을 통해 개발된 관측 장비로 황사, 미세먼지(PM_{10}), 초미세먼지($\text{PM}_{2.5}$)의 질량농도를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 측정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5km이며, 30분 내로 360° 관측이 가능하다.
 - 환경부는 전북 지역(협의 중)에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1대를 설치하여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이 끝날 때까지 시범 운영한 후 확대·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되었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내항선박(국내 항해 선박)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 정부는 이에 따른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유(B-C유 등)에서 경유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시행한다.
- 한편,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생산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장강 삼각주, 편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권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유리의 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1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발표했다.
 - 해당 통지문은 해당 업종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발전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현지 업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붙임 : 미세먼지 정책동향 소식지 26호. 끝.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신영수 서기관(☎ 044-201-6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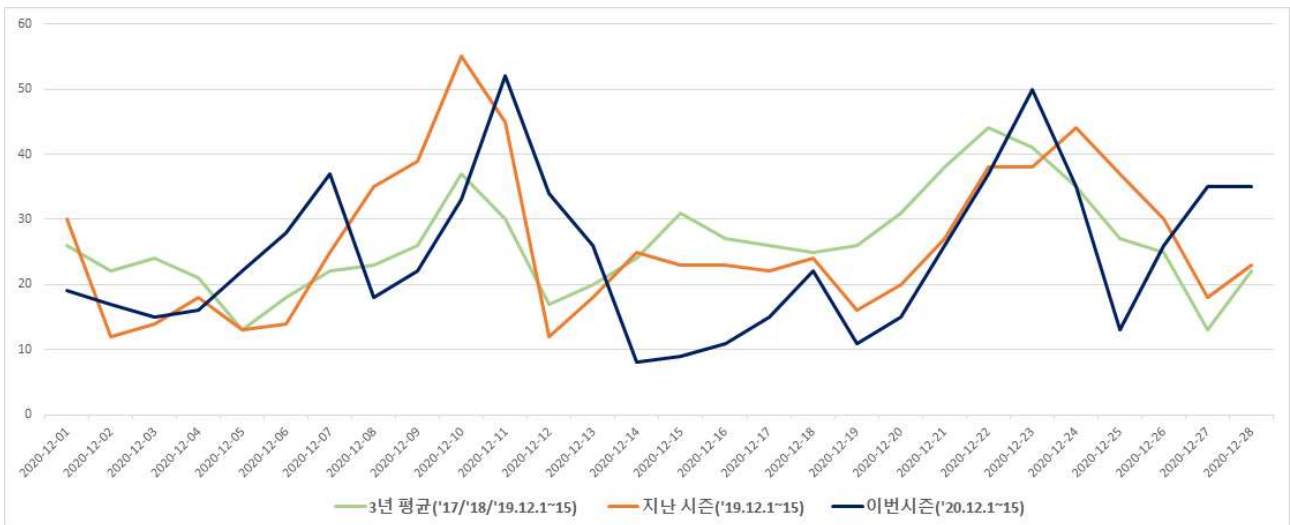
※ 대기환경정책과 신영수 서기관 : 044-201-6874

국내 정책 동향

1 2020년 12.1~28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 (일일 초미세먼지 농도) 2차 계절관리제 시행 현재(20.12.1~28일)까지 일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소 $8\mu\text{g}/\text{m}^3$ (12.14일)에서 최고 $52\mu\text{g}/\text{m}^3$ (12.11일)으로 최소·최고 값 모두 지난해 동기간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

【 일자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단위 : $\mu\text{g}/\text{m}^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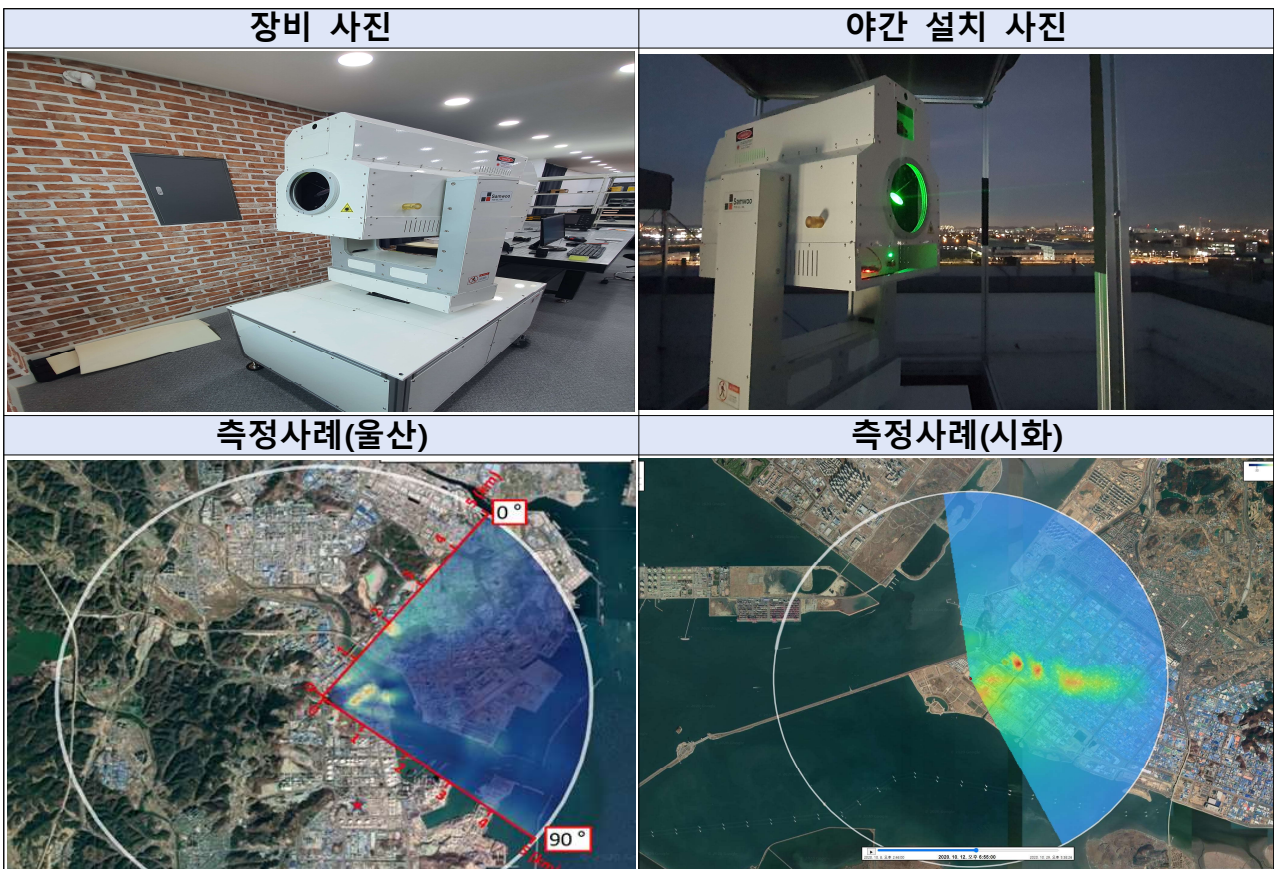
-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20.12.1~28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5\mu\text{g}/\text{m}^3$ 으로 최근 3년 12월 평균($27\mu\text{g}/\text{m}^3$)보다 7% 개선, 지난해 12월($26\mu\text{g}/\text{m}^3$)보다 4% 개선

- ▶ 기타 상세한 농도 상황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뉴스룸'에서 확인 가능
- (접근방법) ① 휴대폰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어코리아)" 어플리케이션 내려받기 → 메인 화면 우측하단 "계절관리제 뉴스룸" 확인 ② PC 에어코리아 누리집 접속 후 우측하단 "계절관리제 뉴스룸" 확인

②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시범도입 추진

- (개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이 가능한 스캐닝 라이다 (LiDAR*) 시범 도입으로 농촌 불법소각 실태 확인과 홍보·계도 추진
 - * Light Detection & Ranging
- (장비 개요) 국내 R&D*의 일환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장비로 현재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1대) 중
 -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R&D, '19~'23년)
 - (측정항목) 황사, PM₁₀, PM_{2.5}의 질량농도
 - (측정 성능) 수평 방향 측정거리 5km(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거리 분해능 30m, 30분내 360° 관측
 - (특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빠른 입체적 관측(스캐닝)이 가능하여 기존 관측자산과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도입 계획) 제2차 계절관리기간인 '21.1월~3월 전북 지역(협의 중)에 설치하여 시범도입·운영한 이후 확대 도입방안 검토

【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사진 】



③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내항선박 연료유 기준 시행

- (시행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

* 현행 0.05%(국내용 경유) ~ 3.5%(B-C유) → 0.05%(국내용 경유) ~ 0.5%(B-C유)

-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는 것이 불가('21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기준 적용)

※ [참고] 외항선(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20.1.1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 중

- (지원 사항)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

- '21.1.1일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 감면

- 중유를 사용하던 내항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유류세 보조금 지속 지원(예산규모 '20년 252억→ '21년 765억)

- (점검 방안) '21.1.1일부터 3월까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

※ [참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국외 정책 동향

① 중국 정부, 대기오염방지 중점지역 내 철강 추가 생산 금지 (20.12.16, 중국 언론사 중국환경 보도)

- (개요)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업정보화부, 공신부)는 <철강업종 생산성 치환 실시 방안(鋼鐵行業產能置換實施辦法) 개정판(12.15일)>, <시멘트 유리 업종 생산성 치환 실시 방안(개정판)(水泥玻璃行業產能置換實施辦法) 개정판(12.16일)> 발표
- (주요 내용)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편웨이 평원 등 대기오염 방지 중점 지역에서 철강, 시멘트 가공원료, 평면 유리의 증산을 금지
 - 다만, 시멘트 가공 원료와 평면유리의 추가 생산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시행 소재지의 환경 용량, 자원, 시장 수요 및 물류 수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증산량에 준하는 저감방안을 강구(치환)
- (향후 계획) <철강업종 생산성 치환 실시 방안(鋼鐵行業產能置換實施辦法) 개정판(12.15일)>은 2021년 1월 18일까지, <시멘트 유리 업종 생산성 치환 실시 방안(개정판)(水泥玻璃行業產能置換實施辦法) 개정판(12.16일)>은 2021년 1월 19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② 중국 장쑤성, 기업별 환경보호 이모티콘 시스템 구축 추진 (20.12.18, 중국 언론사 중국환경보 보도)

- (개요) 중국 장쑤성 생태환경청은 오염물질 배출기업 9만개를 대상으로 환경보호 이모티콘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
- 환경관리 제도·조치·성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 책임 이행 여부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환경관리 스마트화 추진

- (주요 내용) 이모티콘으로 정부와 기업의 환경관리 이행상황 표출
 - (정부) 이모티콘으로 해당 지역의 대기질 현황과 지자체의 환경관리 정책 수준 표출
 - (기업) 이모티콘으로 기업의 환경보호 준법 현황과 환경보호 신용평가 결과 표출
- (향후 계획) 현재 진행중인 9만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시작으로, '20년 중 1차 평가를 완료하고, '21년 6월까지 약 20만 기업에 평가를 실시하는 등 확대할 계획

③ 징진지 대기오염 방지사업,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 승인(12.3)

- (개요)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회는 징진지 공동 발전 대기오염 방지 사업을 승인(중국 재정부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12.14일 중국 언론 중국증권보 보도)
 - ※ ADB가 여섯 번째로 지원하는 징진지 권역 대기오염 관리 사업
- (지원 규모) 투자 총액은 약 5.5억 유로(한화 약 7,332억)
 - ※ ADB가 1.27억 유로(한화 약 1,690억) 대출, 중국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이 약 2.3억 유로(한화 약 3,060억) 출자 등
- (사업 내용) 베이징, 톈진, 허베이, 허난, 산둥, 산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징진지 및 주변 지역을 중점 지원(필요시 장강삼각주도 추가)
 - 재생에너지, 석탄 사용량 감축과 대체와 폐기물 에너지 자원 이용, 친환경 교통,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축, 농촌 난방 방식 석탄에서 전기 혹은 가스로 대체 후속 관리 등 사업 지원